

기뻐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의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목표지요?

역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데 모여서
그냥 말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기뻐요.

그런데 마냥 기뻐하고만 있어도 되나요?
그 목표는 과연 잘 실천되고 있는 걸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우선 다음의 다섯 가지 부문(5P)에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답니다.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빈곤 퇴치, 깨끗한 식수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대한 항목도 있지만,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 강화”와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라는 항목도 들어있어요. 요컨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우리 인류 사회 전체가 더욱더 민주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보호! 환경보전!” 하나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도 함께, 그것도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변화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뻐해도 좋아요. 그 기쁨 위에서, 나 자신부터 그 목표들의 세부항목들을 실천해나가면 되니까요. 같이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해갑시다.